

夢叟 李獻吉의 麻疹書 판본 비교 고찰

최진우,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Comparison of Mongsoo Lee Heon gil's Woodblock printed Books on Measles

Choi Jin woo, Ahn Sang 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Joint Progr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s Lee Heon gil's books have been handed down in oral tradition and written form, there are several different versions including the one edited by the author. Books known to be his writings include Eulmisiinbang, Majinbang contained in Susangsingam, and Majinbang, Majingibang and Majinbibang mentioned in Joseoneukhaksageupjilbyeongsa.

Among Lee Heon gil's books, Eulmisiinbang was mentioned first in literature. Its original version is missing, but a large part of it is quoted in Magwahoitong, through which we can see the contents of Eulmisiinbang. The meanings of Eulmisiinbang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most reliable woodblock printed version as it was the base of Magwahoitong. Second, quotations in Magwahoitong are so accurate that they demonstrate the original texts of Eulmisiinbang and can be used in comparison with other versions. Third, Eulmisiinbang has the largest volume of contents among Lee Heon gil's books.

Susangsingam was printed again in the early 1900s by combing Majinbang and Sanbangsurok. Majinbang included in the book had been known to come from China

but, through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it was found to be the same as Eulmisiinbang. Majinbang is considered to be Eulmisiinbang handed down in different name, and shows the original structure of Eulmisiinbang.

Considering its table of contents and the contents, Majinbang mentioned in Joseoneukhaksageupjilbyeongsa looks the same as Majinbang included in Susangsingam. Majingibang was edited by extracting the quotations of Eulmisiinbang in Magwahoitong, and was reprinted in the name of Majinbibang.

Through analyzing Lee Heon gil's books, we found two courses through which his books have been handed down. First, Eulmisiinbang was quo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new structure of Magwahoitong, and the structure of Magwahoitong had been maintained and reprinted under the titles of Majingibang and Majinbibang. Second, Eulmisiinbang had maintained its original structure, handed down in the name of Majinbang, and reprinted under the title of Susangsingam.

Based on the findings, we selected the quotations of Eulmisiinbang in Magwahoitong and Majinbang included in Susangsingam as texts for studying Lee Heon gil's medicine for measles. Accordingly, it looks likely to rebuild a new research text based on the two woodblock printed versions, and it will be a crucial material for studying Lee Heon gil's medicine for measles.

I. 서론

李獻吉(字는 夢叟, 혹은 蒙叟, 1738~1784)은 18세기 麻疹 치료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丁若鏞(1762~1836)도 그의 영향을 받아 『麻科會通』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약용은 『麻科會通』에 이헌길의 傳을 남겼으며, 역대 의가들을 평가한 「吾見篇 · 古醫」에서 ‘東國疹家之宗¹⁾’이라고 평할 만큼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헌길의 의학적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夢叟 李獻吉의 생애와 학술 계통”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이헌길에 대한 사적과 족보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헌길의 가계와 생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星湖 李瀾의 종손인 例軒 李嘉煥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성호 이익의 후손인 여주이씨 일가와 친밀히 교류하였고, 다산 정약용과도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학문적 교류와 사승관계를 통해 이헌길은 성호 학파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익으로부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학술적 흐름에 이헌길의 학문적 배경이 맞닿아 있음을 밝혔다.

1) “李夢叟全用馬法。而參以萬氏。其臨病活法。非書可傳。況其書皆百忙者。故於前人成法。無所變更。惟蠅蟲一論。多發前未發。亦東國疹家之宗也。” 정약용, 『麻科會通』 「吾見篇 · 古醫」

이러한 선행 연구에 이어 본 논문에서는 이헌길의 저서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다. 지금까지 그의 저서는 『麻疹奇方』, 『麻疹方』, 『夢叟麻疹方』 등 글마다 서로 다르게 소개되었고, 여러 서명이 같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각 저서의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그의 저작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현재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책은 『乙未新詮』, 『壽生新鑑』에 실려 있는 『麻疹方』,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언급된 『麻疹方』, 『韓國醫學史』에 언급된 『麻疹方』, 『麻疹奇方』, 『麻疹秘方』 등이 있다. 이 책들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 의의를 밝혀 그의 저서에 대한 그동안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하였다. 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헌길의 저서가 전승되는 과정을 밝히고, 그의 麻疹治方を 연구하기 위한 텍스트를 선정해 보고자 하였다.

II. 본론

1. 저서 분석

1) 『乙未新詮』

① 『乙未新詮』의 출처

『乙未新詮』은 문헌 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헌길의 저서로서, 『麻科會通』의 「抄撮諸家姓氏書目」에 밝혀져 있다. 「抄撮諸家姓氏書目」은 마진, 두창과 관련된 諸家の 업적과 歷代醫籍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李獻吉의 『乙未新詮』을 비롯한 許浚의 『癘疫神方』, 任瑞鳳의 『壬申方』, 趙廷俊의 『及幼方』, 李景華의 『廣濟秘笈』 등 조선의 문헌 5종과 중국 明清代의 소아두창, 마진, 중두서가 망라되어, 63종에 이르는 서명이 올라와 있다.

당대의 석학이자 이헌길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정약용이 “이헌길의 『乙未新詮』”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乙未新詮』은 이헌길의 저술임이 틀림없다. 현재 『乙未新詮』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으나 『麻科會通』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乙未新詮』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② 여러 이종본의 존재

『麻科會通』에 인용되어 있는 『乙未新詮』의 본문에서는 간혹 “一本云……”³⁾과 같이

2) 김홍균, 醫林撮要의 歷代醫學姓氏에 대하여, 경희한의대 논문집 제21권 제1호, 1998, 108쪽

3) 정약용, 『麻科會通』 「原證篇 · 出疹第十」

一本云。膝以下不出者。防芍甘草湯。

정약용, 『麻科會通』 「原證篇 · 形色第十二」

一本出疹時。面有青色。膈間煩悶關格者。皆蛔也。甚者。用定中湯。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食第四」

一本云。收疹後。飲食久不進者。四物湯。加砂仁麥芽神曲。

이종본의 내용을 추가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이미 『乙未新詮』의 여러 이종본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麻科會通』에 사용된 『乙未新詮』은 이러한 이종본의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는 판본으로 보인다. 또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문에 정약용이 직접 달아 놓은 細註에서도 “一本云……”⁴⁾과 같이 이종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정약용이 『麻科會通』을 저술하면서 당시의 이종본을 다시 수집하여 비교 대조하고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乙未新詮』 저술 당시에 이미 여러 종류의 판본이 존재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헌길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한편으로는 마진이라는 질병의 특성에 기인한다. 마진은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가 힘들고, 또 치료에 있어 시간이 급박한 병인만큼 마진 유행 시 마진 치료 서적이 빠르게 유통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헌길은 『麻科會通』 『夢叟傳』에 실린 바와 같이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불러 줘서 시골의 선비들이 받아 적도록 하여⁵⁾ 급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헌길의 마진 치료에 관한 저작이 본인이 직접 저술한 책 외에도 구술로 받아 적어진 여러 종류의 판본으로 전해져 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③ 『乙未新詮』의 내용과 구성

정약용은 『麻科會通』 「序文」에서 “蒙叟의 책을 가져다가 그 근원을 찾고 그 근본을 탐구한 다음, 중국의 마진에 관한 책 수십 종을 얻어서 이리저리 찾아내어 條例를 자세히 갖추”고,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잘게 나누고 유별로 모아 놓았다”⁶⁾고 저술

一本云。疹後食傷。莫如升葛湯。調蘇合丸。食傷不甚者。竹葉燈心蘇葉煎湯。調蘇合丸三丸。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咽喉第六」

一本曰。喉痛者。桔梗湯。倍加玄參。喉閉者。加牛旁子、荊芥、防風。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嘔吐第七」

一本曰。嘔吐者。母論疹前後。宜秘傳黃芩湯。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大小便第十」

一本曰。疹時尿塞者。四順飲。溺閉者。導赤散。俱閉者。始終宜八正散。

4) 정약용, 『麻科會通』 「原證篇 · 婦人第十六」

夢一本云。芩朮四物湯。升葛白虎湯。相間服。至消疹後。只用芩朮四物湯。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咳喘第五」

一本云。初出時。身體極熱。喘嗽痢下者。宜用麻黃湯。戊九。噴胡荽酒。戊六。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咳喘第五」

一本云。疹後咳嗽。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瘡癰第十四」

一本云。疹後浮腫。宜胃芩芩湯。五皮湯。亦用五芩散。

정약용, 『麻科會通』 「因證篇 · 瘡癰第十四」

一本云。面部及下部。有浮氣。並宜五芩散。加木通車前子。

정약용, 『麻科會通』 「我俗篇 · 酒評第五」

一本云。風寒外削。內氣蟄伏。

5) 정약용, 『麻科會通』 「蒙叟傳」

既而蒙叟不自堪。乃口號治疹諸法。令人按行。於是僻鄉窮士。爭相傳寫。信如六經。雖嘗於醫者。但如其言。亦罔不效。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乙未新詮』 역시 이러한 편찬 방식에 따라 『麻科會通』의 목차별로 나뉘어져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麻科會通』을 통해서 『乙未新詮』 원래의 전체적인 체계를 살펴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麻科會通』의 목차가 매우 체계적이고 세밀하여, 각 목차별로 인용된 부분을 통해 『乙未新詮』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乙未新詮』이 『麻科會通』의 체계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麻科會通』의 구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④ 『麻科會通』의 구성

『麻科會通』은 서두 부분은 먼저 「自序」가 있고, 이어서 「總目題語」를 통해 본문에서의 8편 각 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萬全의 『痘疹世醫心法』, 聶尚恒의 『治疹大法』, 馬之騏의 『麻科彙編』, 張介賓의 『麻科詮』 등의 서문을 실고 있다. 이어지는 「抄撮諸家姓氏書目」에서는 마진과 두창에 관련된 63종의 서명을 기재하였고, 「首編開目」에서는 마진에 관한 歌括, 賦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본문은 「原證篇」, 「因證篇」, 「辨似篇」, 「資異篇」, 「我俗篇」, 「吾見篇」, 「合劑篇」, 「本草篇」의 8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麻科會通』 본론의 목차와 내용

『麻科會通』 篇名	내용
原證篇	마진의 명칭, 病程 등 전형적인 발병 양상에 대해 설명
因證篇	마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증상과 그에 따른 처방을 제시
辨似篇	마진과 혼동하기 쉬운 여러 피부 질환과의 감별 진단
資異篇	두창의 증상과 처방
我俗篇	우리나라의 마진서나 속방의 내용을 선별하여 설명
吾見篇	마진 및 여러 의가에 대한 정약용 자신의 견해
合劑篇	본론에서 나온 처방들을 항목별로 정리
本草篇	처방에 쓰이는 본초의 약성에 대한 설명

⑤ 『乙未新詮』 인용문의 분포

『麻科會通』에서 각 의가들의 의론을 인용한 편은 「原證篇」, 「因證篇」, 「辨似篇」, 「資異篇」, 「我俗篇」의 5편이다. 그 중에서 『乙未新詮』은 각 편별로 「原證

6) 정약용, 『麻科會通』 「序文」

不佞既繇李蒙叟得活。意欲酬無可爲。乃取蒙叟書。溯其源探其本。得中國疹書數十種。上下紬繹。具詳條例。顧其書皆散漫雜出。不便考檢。而麻爲病。酷迅暴烈。爭時急。以判性命。非如他病可歲月謀也。於是支分類萃。眉列掌示。使病家開卷得方。不煩搜索。凡五易藁而書始成。

篇」 전체 인용문 309건 중 51건, 「因證篇」 전체 인용문 258건 중 53건, 「辨似篇」 전체 인용문 70건 중 2건, 「我俗篇」 전체 인용문 74건 중 17건이 인용되어 있고, 「資異篇」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다.

「原證篇」과 「因證篇」은 마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증상별 처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인 만큼 『乙未新詮』 인용 빈도가 매우 높고, 세부 목차별로도 마진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는 「原證篇·名謂」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되어 있다. 이는 정약옹이 「原證篇」과 「因證篇」의 목차를 구성할 때 『乙未新詮』의 내용을 염두하여 구성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창이나 다른 피부질환과의 감별을 하고 있는 「辨似篇」과 「資異篇」에서는 인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乙未新詮』의 내용이 마진의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我俗篇」은 『乙未新詮』 중에서 다른 편에서 인용하고 남은 부분을 덧붙여 구성하였다⁷⁾고 밝힌 것처럼, 여기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치하고 있다. 아래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각 편별로 인용된 세부 목차를 통해 『乙未新詮』의 구성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표2. 『麻科會通』의 목차별 「乙未新詮」 인용문 분포

麻科會通 목차	篇名	原證篇	乙未新詮 인용여부	因證篇	乙未新詮 인용여부	辨似篇	乙未新詮 인용여부	我俗篇	乙未新詮 인용여부
		각편의 세부목차	名謂		X	汗	○	斑疹總論	X
毒源			○	血	○	傷寒發斑	X	原證	○
運氣			○	渴	○	瘟疫發斑	X	因證	X
治法			○	食	○	內傷發斑	X	藥論	○
時令			○	咳喘	○	麻疹	X	酒評	○
藥戒			○	咽喉	○	隱疹	X	食戒	X
脈度			○	嘔吐	○	丹疹	X	糞治	○
日期			○	腹痛	○	瘡疹	X	醫案	X
初熱			○	煩躁譫語 狂亂驚搐	○	罩痘疹	○	雜說	○
出疹			○	大小便	○	雲頭疹	X		
出險			○	泄瀉	○	瘡痤癩	X		
形色			○	痢疾	○	水痘	X		
收疹			○	疔瘰	○				
熱候			○	瘡癰	○				
餘毒			○	蛔蟲	○				

7) 정약옹, 『麻科會通』 「八篇總目題語」
蒙翁緒餘。再加摺摭。作我俗篇。

	婦人	○	雜證	○				
	禁忌	○						

⑥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문이 가지는 의의

『乙未新詮』은 『麻科會通』의 체계로 재배열 되어 인용되었기 때문에 『麻科會通』의 구성을 통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乙未新詮』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정약용이 『麻科會通』을 저술하는 데 있어 저본으로 삼았던 책이므로 『麻科會通』에 사용된 『乙未新詮』의 판본을 신뢰 할 수 있다. 그는 『麻科會通』 「序文」에서 이현길의 치료로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갚고자 『麻科會通』을 쓰게 되었다고 술회하며 직접적인 저술 동기를 밝혔다. 그리고 이현길의 책으로 그 근원을 찾고 근본을 탐구한 다음, 중국의 마진서 수십 종을 얻어 條例를 자세히 갖추고 정리하여 다섯 번이나 글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 책을 완성하였다⁸⁾고 저술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麻科會通』에 마진과 관련된 여러 의가들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현길의 『乙未新詮』이 『麻科會通』 저술의 핵심 저본임을 보여준다. 또 저본으로 삼고 있는 책인 만큼 정약용은 『乙未新詮』의 여러 이종본 중에서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가장 믿을 만한 판본을 선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麻科會通』의 인용 방식은 매우 정확하다. 정약용은 여러 의가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잘게 나누고 유별로 모아 놓았지만⁹⁾, 각 의가의 의론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생략하거나 서로 합치지 않고 “夢叟曰”, “馬氏曰” 등과 같이 의가별로 따로 구분하여 인용해 놓았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의 생각은 篇을 따로 두어 「吾見篇」에서 서술하거나, 細註를 통해 기록하였다. 따라서 “夢叟曰”이라고 인용된 부분은 『乙未新詮』의 원래 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인용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乙未新詮』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판본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표3. 『麻科會通』 인용 형식의 예

『麻科會通』 「因證篇·汗」

馬氏曰。麻疹得汗爲妙。固不可無汗。亦不可過於汗。如初熱時。未曾用藥發表。自然多汗。遍身流出如水。此則腠理開泄。內毒盡從汗出。順症也。不必再用發表。亦不可驟便止

8) 정약용, 『麻科會通』 「序文」

不佞既繇李蒙叟得活。意欲酬無可爲。乃取蒙叟書。涉其源探其本。得中國疹書數十種。上下紬繹。具詳條例。顧其書皆散漫雜出。不便考檢。而麻爲病。酷迅暴烈。爭時急。以判性命。非如他病可歲月謀也。……凡五易藁而書始成。

9) 정약용, 『麻科會通』 「序文」

於是支分類萃。眉列掌示。使病家開卷得方。不煩搜索。

汗。如汗出太多不止。乃毒盛致液妄行。宜用五倍子三錢爲末。唾津調爲餅。敷貼臍上。其汗卽止。○夢叟說同。

夢叟曰。凡疹自初至終。有微汗自頭至足者吉。汗少者。量用發散之劑。過汗者。慮或泄氣。如麻黃、紫蘇之類。慎勿更用。葛根比他雖勝。亦勿過用。○初發。皆用升葛湯。而若汗孔自初不閉。日夜流汗不止者。但當靜俟升葛。雖聖不必用。○大汗者。陽氣暴虛。必發喘。須急止之。○時時大汗。亦宜五倍子餅。

셋째,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문은 『麻科會通』 저술 당시 존재하던 이중본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乙未新詮』에 이미 다른 이중본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정약용이 다시 한번 細註를 통해 정약용이 수집하고 있던 이중본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부는 다양한 이중본의 내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량면에서도 현존하는 이헌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싣고 있다.

2) 『壽生新鑑』¹⁰⁾에 실린 『麻疹方』

『壽生新鑑』은 중국에서 들어온 『麻疹方』과 정약용의 『產方隨錄』을 함께 묶어 간행한 마진과 부인질환에 관한 의방서¹¹⁾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麻疹方』의 내용이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내용과 거의 같고 『壽生新鑑』에서 밝힌 『麻疹方』의 저자 “李顯吉”이 “李獻吉”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麻疹方』이 이헌길의 저작으로 짐작되었기에 내용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았다.

① 『壽生新鑑』의 간행 내력

소장자인 月城 孫厚翼의 서문에 “(손후익의) 집에서 내려오던 이 『麻疹方』은 判書 李承輔가 중국의 南陽 李顯吉로부터 얻게 된 것인데, 東醫에 뛰어난 이로 하여금 부연하여 쓰게 한 것이고, 『產方隨錄』은 茶山 丁若鏞이 지은 것인데, 모두 아직 세상에 알려진 적이 없었다. 그 方에 근거하여 시험해 보니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이 치법을 보전시키고 1劑1藥을 私事롭게 할 수는 없기에¹²⁾ 두 책을 함께 묶어 『壽生新鑑』이라 이름붙이고 간행하였다고 간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

『壽生新鑑』의 간행 시기를 1865년(高宗 2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¹³⁾하고 있다. 그

10)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jisik.kiom.re.kr)

11) 『壽生新鑑』 해제, 한의학지식 정보자원 웹 서비스(jisik.kiom.re.kr)

12) 『壽生新鑑』 「序」

家有麻疹方卽 李判書承輔公 得之於中國之南陽李顯吉 使東醫之高明者 演而爲書者也 有產方隨錄卽 茶山丁先生之所著作而 而皆未及公行于世者也 依其方試之 殆無不中 故凡有其病者多望吾門 而獲其治 由近以來一劑一藥不可以私自旋 人不免爲篋笥中物深爲大德與首福而惜之也 同志諸人之有意於壽人濟生之術者勸以廣惠於一邑 遂合兩方而編一冊 名之曰壽生新鑑付之 活印之公鋪焉

러나 月城 孫厚翼(1888 ~ 1953)은 독립 운동가로 활약한 인물로서, 그의 활동 시대를 감안해 보면 『壽生新鑑』의 간행은 1900년대 초로 생각된다. 다만 『麻疹方』은 서문의 내용처럼 집안에 이미 전해오던 책이었으므로 『麻疹方』이 전해진 시기는 그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서문의 내용대로 判書 李承輔¹⁴⁾가 실제로 중국에서 『麻疹方』을 구해 온 것이라면, 그가 청나라에 갔던 1869년 후에 孫厚翼의 집안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麻疹方』이 중국의 책으로 오인되어 전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활동하던 시기인 1800년대 중반 쯤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② 『乙未新詮』과의 관계

『壽生新鑑』에 실린 『麻疹方』을 이현길의 저작임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문과 원문을 비교 대조해 보았다. 『麻疹方』의 분량은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문 전체 분량의 4/5 정도이며, 원문은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문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麻疹方』에는 처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처방의 용량 등 처방과 관련된 부분이 더 있고, 간혹 이러한 내용이 『麻科會通』에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麻科會通』에서는 처방을 「合劑篇」에 따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麻疹方』에서 처방에 직접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인용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의미는 동일하나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필사나 구술을 통한 전승의 과정에서 단어가 약간씩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麻疹方』의 원문은 『乙未新詮』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현길의 저작이 분명하며 『乙未新詮』 혹은 『乙未新詮』의 이종본이 『麻疹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麻疹方』의 저자

『壽生新鑑』의 서문에서는 『麻疹方』의 저자를 “南陽李顯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麻疹方』은 이현길의 저작임이 확인되었으므로 “李獻吉”을 “李顯吉”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麻科會通』 「夢叟傳」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시 이현길의 마진 치법은 구술이나 필사로 전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구술로 전해지면서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헌(獻)”이 “현(顯)”으로 기록되거나, 초서로 필사되는 과정에서 “獻”이 “顯”으

13)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523쪽

14) 李承輔(1814~1881). 조선 말기의 문신. 자는 稚剛 또는 致剛. 1845년(헌종 11)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1852년(철종 3) 사헌부집의·동부승지를 지냈다. 고종조에 들어와 대원군의 중용으로 1864년(고종 1) 이조참판·개성부유수·도승지·대사헌·홍문관부제학을 역임하고, 1865년 규장각 직제학·예문관제학을 거쳐 1871년 이조판서·의정부좌참찬에 이르렀다. 1872년에는 호조판서에 宣惠堂 상을 겸직하였고, 이어 규장각제학·의정부우찬성을 역임하였다. 1869년 冬至兼謝恩使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壽生新鑑』의 서문에서 『麻疹方』을 李承輔가 “중국의 南陽李顯吉”로부터 얻은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실제로 李承輔가 중국에서 구해 온 것이라면, 이는 『麻疹方』이 당시에 이미 중국에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헌길의 마진 처방의 효험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혹은 단순히 이헌길을 중국 사람으로 오인하여 『麻疹方』을 중국책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1800년대 중반에 이미 이헌길이라는 인물이 중국 사람으로 인식될 만큼 거의 잊혀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헌길이라는 이름은 잊혀져 갔지만 그의 마진 의학만은 책으로 전해져 이어져 갔다.

④ 『麻疹方』의 書名

『麻科會通』의 「抄撮諸家姓氏書目」에 밝혀져 있듯이 『麻科會通』이 저술되던 당시만해도 이헌길의 저서는 『乙未新詮』이라는 서명을 달고 있었다. 그 때까지는 아직 乙未年(1775년)에 보여줬던 이헌길의 활약으로 인해 “乙未”년의 의미가 강조되어 서명이 지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乙未年의 의미보다는 마진의 처방이 담겨진 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서명이 『麻疹方』으로 변경되어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뒤에 소개될 『麻疹奇方』이나 『麻疹秘方』의 서명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다.

⑤ 『麻疹方』의 구성과 내용

『麻疹方』의 목차는 總論, 始痛, 發斑, 消斑, 熱候, 餘症, 蛔, 疳類, 瘡類, 大小便, 泄痢,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瘡疾, 後頭, 中惡, 婦人孕婦附의 20개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본초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總論」부분, 마진의 전형적인 病程과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 始痛, 發斑, 消斑, 熱候, 餘症 부분, 각 증상별 치료법을 싣고 있는 蛔, 疳類, 瘡類, 大小便, 泄痢,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瘡疾, 後頭, 中惡, 婦人孕婦附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⑥ 『麻疹方』이 가지는 의의

『麻疹方』의 원문의 내용은 『乙未新詮』과 일치하나 전체적인 목차나 문장의 배열 등 형식적인 면에서 『麻科會通』의 체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麻疹方』이 『麻科會通』의 체계로 재배열된 『乙未新詮』 이전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麻疹方』에서는 『麻科會通』에서 정약용이 수정하기 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약용은 우리나라 풍속에서 쓰는 말로는 ‘疹出’을 ‘發斑’으로 하고, ‘疹沒’을 ‘消斑’이라 하였는데 이헌길 역시 ‘發斑’, ‘消斑’이라고 칭하여, ‘斑’과 ‘疹’이 의미상 혼란을 초래

하므로 이현길이 發斑, 消斑이라고 논한 것은 모두 疹出, 疹沒이라고 고쳐서 헛갈리지 않도록 하었다고 말하였다¹⁵⁾. 그래서 『麻科會通』에서는 ‘發斑’, ‘消斑’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고 모두 ‘疹出’, ‘疹沒’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麻疹方』에서는 모두 ‘發斑’, ‘消斑’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목차에서도 『麻科會通』에서는 마진의 진행 단계를 初熱, 出疹, 收疹로 나눈 것과는 달리 始痛, 發斑, 消斑으로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麻疹方』은 『麻科會通』에 비해 목차가 간략하며, 각 목차별로 보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麻疹方』이 전체 20개의 목차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麻科會通』에서는 『乙未新詮』이 많이 인용된 「原證篇」, 「因證篇」, 「我俗篇」에서 각각 17개, 16개, 9개로 아주 자세히 나뉘어져 있어서, 『麻疹方』이 보다 간략한 목차를 보이고 있다. 목차 상의 이러한 차이로 인해 『麻疹方』에서 하나의 소목차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 『麻科會通』에서는 여러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麻疹方』의 總論은 자주 사용하는 약재나 처방의 효능과 사용법, 약의 성미나 계절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 속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한 주의 등 마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원문이 『麻科會通』에서 「原證篇」의 藥戒, 時令을 비롯하여 「我俗篇」의 原證, 藥論, 酒評, 糞治, 雜說 등에 인용되어 있다. 『麻疹方』의 목차 중에서 특히 始痛, 發斑, 消斑, 餘症과 같이 마진의 진행 양상에 따른 증상과 처방을 설명한 목차의 내용이 『麻科會通』에서는 여러 목차에 걸쳐 인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증상별 치료법을 정리한 熱候, 餘症, 蛔, 疳類, 瘡類, 大小便, 泄痢,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瘡疾, 後頭, 中惡, 婦人孕婦附 부분은 원래의 목차가 구체적이고 내용이 확실한 만큼 『麻科會通』에 인용될 때에도 같은 제목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정약용, 『麻科會通』 「吾見篇」

我邦俗語。以疹出爲發斑。疹沒爲消斑。故李蒙叟所論。亦稱發斑、消斑。蓋習於耳目。而順於口吻也。……斑疹、火丹、陽毒等症。舊稱發斑、消斑。而移之麻疹也。名稱暫誤。實害滋巨。醫者看古醫書。凡遇斑字。不辨其爲疹爲斑。……一有差舛。人命立判。此不可不正也。故蒙叟所論發斑消斑。悉改爲疹出疹沒。庶不眩也。

표4. 『麻疹方』과 『麻科會通』의 『乙未新註』 인용문의 목차별 원문 분포의 차이

『麻疹方』	『麻科會通』에서 인용된 부분
總論	「原證篇」：藥戒，時令 「我俗篇」：原證，藥論，酒評，糞治，雜說
始痛	「原證篇」：日期，初熱，出疹，出險，形色 및 藥戒，時令 「因證篇」：汗
發斑	「原證篇」：形色，熱候，出疹，出險
消斑	「原證篇」：收疹，熱候，餘毒
熱候	「因證篇」：煩躁譫語狂亂驚搐
餘症	「原證篇」：出險，餘毒 「因證篇」：瘡癰，疔瘡，食，咳喘，雜證
蛔	「因證篇」：蛔蟲
疔類	「因證篇」：疔瘡，瘡癰
瘡類	「因證篇」：瘡癰
大小便	「因證篇」：大小便，泄瀉，痢疾，嘔吐
嘔吐	「因證篇」：嘔吐
咳喘	「因證篇」：咳喘
咽喉	「因證篇」：咽喉
失血	「因證篇」：血
狂譫	「因證篇」：煩躁譫語狂亂驚搐
瘡疾	「因證篇」：雜證
後頃	「因證篇」：食
中惡	「因證篇」：雜證
婦人孕婦附	「原證篇」：婦人

셋째, 『麻疹方』에서는 이어져 나오는 문장이 『麻科會通』에 인용될 때는 다른 목차로 나뉘들어가거나 같은 목차 안에서 따로 인용되는 등 문장의 배열 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약용이 의가들의 의론을 잘게 나누고 유별로 모아 놓는 과정을 거치기 전 원래의 문장 배열을 보여준다.

표5. 『麻疹方』 원문이 『麻科會通』에 인용된 예

	『麻疹方』 원문	『麻科會通』의 원문
서로 다른 편에 인용된 예	<p>「始痛」</p> <p>①疹初發時，湏用升葛湯，而泄瀉腹痛驚搐者，勿爲過用。</p> <p>②初發時，毋論某症，皆用升葛湯，而若汗孔自初不閉，日夜流行不止者，但當靜俟，而不可妄用藥，升葛湯，雖聖藥亦不必用</p>	<p>「原證篇 初熱」</p> <p>夢叟曰 ①初發熱時，須用升葛湯，而若泄瀉腹痛驚搐者，勿過用。又曰，…(후략)…</p> <hr/> <p>「因證篇 汗」</p> <p>夢叟曰 凡疹自初至終，…(중략)…</p> <p>○②初發，皆用升葛湯，而若汗孔自初不閉，日夜流汗不止者，但當靜俟升葛，雖聖不必用。○大汗者 …(후략)…</p>
같은 목차 내에서 문장 배열이 바뀐 예	<p>「蛔」</p> <p>③用兩黃芩湯，而蛔氣有作亂特甚者，化蠶丸，可以治之，此丸能治上蛔下蛔及蛔疳等症，眞治蛔之聖藥也。④又曰黃芩湯，非但治蛔，而已兼治胃熱，故疹症自初痛，已有蛔症者，不可用他藥，而只用兩黃芩湯，以爲蕪斑消斑之地。</p> <p>⑤至於化蠶丸，則雖有黃連一兩，能清疹熱，而終不如兩黃芩湯之兼治，故所以蛔症特甚，然後始用此丸，以爲專治之方。</p>	<p>「因證篇 蛔蟲」</p> <p>夢叟曰 凡蛔，熱則必動 …(중략)…</p> <p>○④蓋此兩黃芩湯，非但治蛔，兼治胃熱，故疹自初熱，已有蛔證者，勿用他藥，只此兩藥，以之出疹，以之收疹 …(중략)…自是治蛔之藥。○</p> <p>③用兩黃芩湯，而蛔猶作擊者，宜化蠶丸，此丸能治上蛔下蛔及蛔疳等症，眞治蛔之聖藥也。⑤然至其兼治疹熱，此丸雖有黃連一兩，終不如兩黃芩湯之爲當劑，故蛔症特甚，然後方用此丸，以專治之。</p>

이러한 근거를 통해 『麻疹方』이 『乙未新詮』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麻疹方』의 체계를 바탕으로 『乙未新詮』의 체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언급된 『麻疹方』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는 『壽生新鑑』에 실린 목판본 『麻疹方』과는 달리 필사본 판본을 사진¹⁶⁾과 함께 설명 하였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목차와 목차별 요약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목차는 始痛, 發斑, 消癥, 重出, 熱候, 餘症, 蛔, 疳類, 瘡類, 大小便, 泄瀉,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瘧疾, 後頃, 中惡, 婦人付孕婦, 酒, 藥論, 總論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¹⁷⁾.

한편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소개된 『麻疹方』은 『壽生新鑑』에 실린 『麻疹方』과 목차가 일치하고 있으며¹⁸⁾, 각 목차별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실린 사진과 비교해 봐도 “麻疹方”이라는 책 제목 아래 “乙未南陽李顯吉製”라고 “李獻吉”을 잘못 기재하고 있는 점과 이어지는 “始痛”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일치 한다는 점에서 두 책이 같은 저본으로부터 필사되어 전해진 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韓國醫學史』에 언급된 『麻疹方』

김두종의 『韓國醫學史』에서도 『麻疹方』이라는 서명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저술 연도나 목차, 혹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麻科會通』의 서문 중에서 “取麻疹書獨自探蹟, 活嬰稚以萬數.(마진에 관한 책을 구하여 홀로 탐구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를 살렸다.)”을 “蒙叟가 麻疹方으로 幼兒를 治한 것이 萬으로 헤아린다”고 번역하며 일반적인 마진 서적으로서의 의미를 오역하여 이현길의 저서로서의 『麻疹方』과 일치시키고 있다¹⁹⁾. 한편 이현길의 원본과는 거리가 있다고 소개한 최규현의 연활자본 『麻疹秘方』을 『麻疹方』으로 칭하며 이현길의 저서로 보기도 하였다²⁰⁾.

이로보아 『韓國醫學史』에서는 현존하는 책으로서 『麻疹方』을 소개한 것인 아니라 마진에 관한 치법과 처방이 담긴 책이라는 일반적 의미에서 “麻疹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존하는 책의 이름으로서의 『麻疹方』과 혼용함으로써 의미 전달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16) 三木榮, 위의 책, 朝鮮醫學史 229쪽

17) 三木榮, 위의 책, 朝鮮疾病史 48쪽

18) 『朝鮮醫學史及疾病史』의 『麻疹方』 목차는 “始痛, 發斑, 消癥, 重出, 熱候, 餘症, 蛔, 疳類, 瘡類, 大小便, 泄瀉,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瘧疾, 後頃, 中惡, 婦人付孕婦, 酒, 藥論, 總論”이며, 『壽生新鑑』의 『麻疹方』 목차는 “總論, 始痛, 發斑, 消班, 熱候, 餘症, 蛔, 疳類, 瘡類, 大小便, 泄痢, 嘔吐, 咳喘, 咽喉, 失血, 狂譫, 瘧疾, 後頃, 中惡, 婦人孕婦附”이다. 앞의 책에서는 “總論”이 뒤로 가고 “重出”, “酒”, “藥論”가 더 추가 되어 있긴 하나, 뒤의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重出”의 내용은 “消癥”에 같이 포함되어 나오고, “酒”, “藥論”의 내용은 “總論”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19) 김두종, 위의 책, 342쪽

20) 김두종, 위의 책, 341쪽 부도 3-37, 389쪽

5) 『麻疹奇方』²¹⁾

『麻疹奇方』은 마진의 처방과 처방에 대하여 구술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후세에 편집한 것으로²²⁾, 이헌길의 저작으로서 많이 소개되어 왔으나, 최근 『麻科會通』에서 “夢叟曰”이라고 인용된 李獻吉의 이론과 처방만을 따로 모아놓은 책으로 밝혀졌다²³⁾.

이 책은 필사본 1책으로 되어 있으며, 自序와 跋文이 있다. 책의 구성은 처음에 麻疹奇方序가 있고, 이어 運氣라는 제목 아래에 總論이 나온다. 이후에 毒源, 治法, 時令, 藥戒, 脈度, 日期, 初熱, 出疹 出險, 形色, 熱候, 餘毒, 婦人, 禁忌의 순서로 나열되고, 그 뒤에는 因證篇이라는 큰 제목에 汗, 食, 咳嗽, 喘, 咽喉, 嘔吐兼瀉, 腹痛, 煩躁譫語狂亂驚搐, 大小便, 泄瀉, 痢疾, 疔瘰, 瘡癰, 腫脹, 蛔蟲, 雜症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다음에는 辨似篇이라는 큰 제목에 斑疹論罩痘, 因證, 藥論, 酒評, 糞治, 集說, 古醫가 나온다.

自序에 해당하는 麻疹奇方序는 『麻科會通』의 서문과 같고, 跋文은 『麻科會通』의 「夢叟傳」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總論은 運氣라는 제목 아래에 있긴 하지만 운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마진의 모양과 감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東醫寶鑑』 「小兒門·附癩疹」의 내용과 같은데, 이는 18세기 후반 당시에도 마진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麻科會通』에서 이헌길 인용부분만을 취하여 모아놓고 있으며, 그 목차도 『麻科會通』의 原證篇, 因證篇, 辨似篇에 속하는 세부목차와 같다.

이와 같이 『麻科會通』으로부터 이헌길의 인용부분만 따로 모아져서 이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헌길의 처방이 효과가 좋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麻科會通』의 편차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차를 통해 이헌길의 저술이 재배열됨으로써 이를 치료에 활용하기가 수월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6) 『麻疹秘方』

『麻疹秘方』은 『麻疹奇方』을 1912년 崔奎憲이 활자본으로 廣學書舖에서 간행하였다. 현재 판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책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²⁴⁾고 알려져 있다.

2. 저서에 관한 고찰

1) 저서의 전승과정

21) 1冊/ 38張/ 筆寫本, 24.7×16.5cm, 서울대 규장각 소장

22)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위의 책,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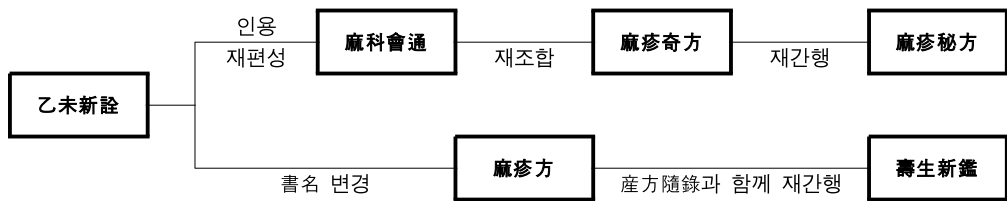
23) 안상우, 고의서산책 193, 『麻疹奇方』, 민족의학신문 455호

24)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위의 책, 20쪽

이헌길의 저서로 알려진 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헌길의 저서가 전해지는 과정을 <표 8>와 같이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러 이종본과 함께 존재하였던 『乙未新詮』은 1789년 정약용이 『麻科會通』을 저술하면서 『麻科會通』의 새로운 체계 속으로 나누어져 인용되었다. 이는 후대에 이헌길의 저술만을 보다 수월하게 찾기 위해서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문만을 모은 『麻疹奇方』이 나오게 되었다. 이 『麻疹奇方』은 1912년 최규헌에 의해 연활자본으로 재간행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乙未新詮』의 원문은 보존되었으나, 『麻科會通』에서 재분류된 체계대로 전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麻疹方』으로 서명만 바뀐 채 『乙未新詮』의 원래 모습대로 전해지게 된다. 이 『麻疹方』은 다시 『産方隨錄』과 함께 묶여져 『壽生新鑑』으로 재간행되었다. 그 전승과정에서 전체적인 체계나 문장의 배치 등은 유지되었으나 원문은 필요에 따라 다소 침삭되어 전체 분량은 『乙未新詮』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표6. 이헌길 저서의 전승과정



2) 이헌길의 마진 처방 연구를 위한 텍스트 선정

현재 이헌길의 저술은 『乙未新詮』의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麻科會通』의 인용문이나 필사본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진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판본 간의 비교 대조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朝鮮醫學史及疾病史』의 『麻疹方』은 『壽生新鑑』에 실린 『麻疹方』과 같은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고, 『麻疹奇方』과 『麻疹秘方』은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 부분을 모아 놓은 책이었다. 따라서 그의 마진 의학을 살필 수 있는 텍스트로는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 부분과 『壽生新鑑』에 실린 『麻疹方』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 두 판본이 가지는 텍스트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7.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 부분과 『壽生新鑑』에 실린 『麻疹方』의 텍스트로서 의의와 한계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부	『壽生新鑑』에 실린 『麻疹方』
텍스트의 의의	- 정약용이 선정한 『麻科會通』의 底本이므로 『乙未新詮』은 당시 가장 믿을 만한 판본으로 볼 수 있다.	- 전체적인 체계와 목차 및 문장의 배열 방식, 사용되는 용어가 『乙未新詮』 원래의 모습을 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麻科會通』의 인용방식이 매우 정확하여 『乙未新詮』의 원문을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판본과의 비교에서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현존하는 이헌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싣고 있다.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麻科會通』의 새로운 목차 속으로 나누어져서 인용되어 『乙未新詮』 원래의 체계를 알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麻科會通』에 인용된 『乙未新詮』 분량의 4/5 정도로 적다. - 필사 등의 전승과정을 거치면서 문장상의 변화가 가해졌다.



연구 텍스트 구성	원문의 문장은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 부분이 정확하고 분량면에서 풍부하므로 이를 사용하고, 전체적인 목차는 『壽生新鑑』에 실린 『麻疹方』의 목차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텍스트를 설정
-----------	---

즉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 부분은 『乙未新詮』의 원문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고, 현재 이헌길의 저작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乙未新詮』 원래의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를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麻科會通』에 인용되는 과정에서 목차가 바뀌거나 내용이 재배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乙未新詮』 원래의 체계를 살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乙未新詮』의 체계를 보존하고 있는 『壽生新鑑』의 『麻疹方』의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헌길의 마진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 부분의 원문 문장을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 『麻疹方』의 목차를 염두해 두어야 『乙未新詮』의 원 모습에 가까운 텍스트가 설정될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이헌길의 마진 의학을 연구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이헌길의 저작으로 알려진 책들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헌길의 저작은 구술과 필사로도 전해져서 이헌길 본인의 저작 외에도 여러 이종본들이 존재한다. 이헌길의 저서 알려진 책으로는 현재 『乙未新詮』, 『壽生新鑑』에 실려 있는 『麻疹方』,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언급된 『麻疹方』, 『麻疹奇方』, 『麻疹秘方』 등이 있다.

『乙未新詮』은 문헌 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헌길의 저서로서 원본은 전하지 않으나 『麻科會通』에 많은 부분 인용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乙

『乙未新詮』이 가지는 의의는 첫째, 정약용이 『麻科會通』의 底本으로 삼은 책이므로 『乙未新詮』은 당시 가장 믿을 만한 판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麻科會通』의 인용방식이 매우 정확하여 『乙未新詮』의 원문을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판본과의 원문 비교에서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셋째, 『乙未新詮』은 당대에 존재하던 이종본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고, 현존하는 이헌길의 저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실고 있다.

『壽生新鑑』은 『麻疹方』과 『產方隨錄』을 합하여 1900년대 초에 다시 간행한 책이다. 여기에 실려 있는 『麻疹方』은 그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책으로 알려져 왔으나, 『麻科會通』의 『乙未新詮』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 『乙未新詮』과 같은 책임을 밝혔다. 『麻疹方』은 『乙未新詮』 혹은 『乙未新詮』의 이종본이 후대에 서명만 바뀌어 전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發斑’, ‘消斑’이라는 용어의 사용, 포괄적인 목차, 문장 배열 상의 특징 등을 근거로 『乙未新詮』이 『麻科會通』에서 재배열되기 이전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언급된 『麻疹方』은 목차와 내용으로 미루어 『壽生新鑑』에 실려 있는 『麻疹方』과 같은 책으로 보이며, 『韓國醫學史』에 언급된 『麻疹方』은 현존하는 책으로서 『麻疹方』을 소개한 것인 아니라 마진에 관한 치법과 처방이 담긴 책이라는 일반적 의미에서 “麻疹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麻疹奇方』은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부분을 따로 모아 만든 책이며, 이를 다시 崔奎憲이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 『麻疹秘方』이다.

이헌길의 저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저서가 전해지는 과정은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여러 이종본과 함께 존재하였던 『乙未新詮』은 『麻科會通』의 새로운 체계 속으로 나누어져 인용되었고 이러한 『麻科會通』의 형식이 유지된 채 『麻疹奇方』과 『麻疹秘方』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乙未新詮』이 『麻疹方』으로 서명만 바뀐 채 『乙未新詮』의 원래 모습대로 전해져서, 『壽生新鑑』으로 재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헌길의 마진 의학을 연구하기 위한 텍스트로서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부분과 『壽生新鑑』에 실려 있는 『麻疹方』을 선정할 수 있었다. 『麻科會通』의 『乙未新詮』 인용부분은 원문의 정확성과 분량의 방대함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인용과정에서 『乙未新詮』 원래의 체계가 『麻科會通』의 목차로 재배열 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壽生新鑑』에 실려 있는 『麻疹方』의 체계를 통해 『乙未新詮』의 체계를 추정하여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판본의 텍스트로서의 특징을 근거로 새로운 연구 텍스트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헌길의 마진 의학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김기욱, 김남일 외 16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 김신근 편, 한의약서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麻疹奇方』·『麻疹篇』·『麻科會通』, 한국의학대계 36, 여강출판사, 1988
-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www.minchu.or.kr)
-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1962
- 안상우, 고의서산책 193, 『麻疹奇方』, 민족의학신문 455호
- 정약용, 麻科會通, 한국의학대계 36, 여강출판사, 1988.
-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한의학교전연구소 한의학대사전편집위원회,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94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www.jisik.kiom.re.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